

슈퍼카 전설에 AMG 더했다... 벤츠 고성능 로드스터

럭셔리 로드스터 SL 7세대 완전 변경 모델 라인업·가격 공개 'AMG SL 63 4매틱+'·'AMG SL 63 4매틱+ 퍼포먼스' 2종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다음달 공식 출시를 앞둔 럭셔리 로드스터 SL의 7세대 완전 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의 라인업과 가격을 공개했다.

26일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SL은 슈퍼 스포츠카의 전설로 꼽히는 레이싱 카 300SL이 1952년 첫 선을 보인 뒤 70년 동안 세대를 거듭해왔다.

이번 7세대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은 AMG의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갖추면서도 일상 주행에서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놓치지 않은 모델이라고 벤츠코리아는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63 4매틱(MATIC)+'와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63 4매틱+ 퍼포먼스' 등 2종으로 출시된다. 오는 31일 개최되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벤츠는 70여년 전 브랜드 잠재력을 확장하기 위해 스포츠카인 최초의 SL을 생산했다. 1952년에 첫 선을 보인 후 300SL(W194)은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1등과 2등을 모두 석권하면서 우승을 달성했다. 뉴르브르크링 그랜드 주빌리 상 스포츠카 부문에서도 1위부터 4위까지 수상을 휩쓸었다.

1954년 벤츠는 300SL의 양산형 스포츠카인 W 198을 소개했다. 하늘을 향해 펼쳐지는 새의 날개와 같은 독특한 디자인의 도어 덕분에 '갈렝'(Gullwing)이라는 애칭을 가진 W198은 1999년 '세기의 스포츠카'(Sports car of the Century)



로 선정됐다. 이후 SL모델은 하드 탑 컨버터블 모델 '파고다'(Pagoda), 18년간 제작 및 판매돼 단일 모델로는 G-클래스를 제외하고 벤츠에서 가장 오래 생산된 모델인 R107(1971-1989년), 눈에 띄는 왜기 모양의 차체 외형 덕분에 자동차계의 조각품으로 불렸던 R129(1989-2001년) 등으로 계보를 이어갔다.

이번 7세대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은 지난 70년 간 역사에서 AMG가 독자 개발한 첫 SL 모델이다.

클래식한 디자인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현재 벤츠가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 '감각적 순수미'(Sensual Purity)에 AMG 고유의 스포티함이 결합됐다.

인테리어도 아날로그와 최첨단 디지털 요소가 결합된 '하이퍼아날로그'(hyperanalogue)를 구현했다. 제트기의 터빈 노즐에서 영감을 받은 송풍구 디자인은 12.3인치 운전석 계기판, 11.9인치 센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SL의 7세대 완전 변경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을 공개했다. AMG가 독자 개발한 첫 SL 모델로, 다음달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럴 디스플레이 등 최신 디지털 요소와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토마스 클라인 벤츠코리아 사장은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적인 럭셔리 로드스터의 아이콘으로 인정받아온 'SL'이 럭

셔리 고성능 브랜드 AMG의 역동성과 스포티함이 만나 현대적으로 재탄생한 모델"이라며 "이번 7세대 SL이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선사하며 럭셔리 스포츠카의 기준을 재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63 4매틱+의 가격은 2억3360만원, AMG SL 63 4매틱+ 퍼포먼스는 2억586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더 넓고 날렵하다...쏘나타 디 엡지 디자인 공개

현대차 8세대 부분변경 모델

현대자동차는 27일 8세대 쏘나타의 풀체인지급 부분변경 모델 '쏘나타 디 엡지'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쏘나타 디 엡지의 차명은 풀체인지급으로 바뀐 쏘나타의 날렵하고 직선적인 디자인과 개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고객들의 스타일을 강조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현대차는 덧붙였다.

쏘나타 디 엡지는 2019년 3월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변경급 부분변경 모델로, 현대차의 디자인 정체성 '센수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 감성을 더한 스포티함)를 바탕으로 날렵한 인상을 더해 역동성을 강조했다.

전면부는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 에어 인테이크가 하나로 합쳐진 통합형 디자인으로 역동적이고 와이드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측면부는 낮게 시작하는 프론트 엔드와 긴 후드가 패스트백을 연상시키는 매끈한 루프라인으로 이어져 스포티함을 더했다.

후면부는 고성능 스포츠카를 연상케 하는 날렵한 리어 스포일러 형상의 가니쉬로 역동적인 인상을 갖췄다.

쏘나타 디 엡지 실내 디자인은 운전자의 드라이빙 경험에 초점을 맞춰 스마트하면서도 넓게 느껴



지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현대차는 각각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구성된 디스플레이를 곡선의 형태로 연결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탑재해 운전자의 시인성과 고급감을 동시에 높였다.

이날 함께 공개된 N 라인 모델은 기본 모델에 ▲확대된 프론트 범퍼 그릴 ▲19인치 전용 휠 ▲리어 스포일러 ▲듀얼 트윈 터 머플러 등을 더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해 더욱 스포티해진 쏘나타 디 엡지는 컨셉포러리 세단으로서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이라며 "추후 신차발표회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에 못지않게 개선된 상품성을 공개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오는 30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 쏘나타 디 엡지를 전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렉서스, 프로골퍼 4인 홍보대사 위촉

이소미·허다빈·박상현·함정우

렉서스코리아는 렉서스 홍보대사로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이소미(대방건설), 허다빈(한화큐셀)과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박상현(동아제약), 함정우(하나금융그룹) 총 4명의 프로골퍼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이번에 선정된 4명의 선수들은 '팀 렉서스'(TEAM LEXUS) 홍보대사로 올해 12월까지 활동하며 훈련이나 경기 참가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렉서스의 다양한 전용화 모델을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골프 원포인트 레슨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렉서스코리아 강대환 상무는 "지난 2022년에

는 KLPGA 시즌에서 이소미 선수가 2승, KPGA 시즌에서 박상현 선수가 1승을 거두는 등 '팀 렉서스'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이뤄내 의미가 깊은 한해였다"라며 "올 시즌에도 새롭게 출시될 전용화 모델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렉서스코리아는 상품, 판매, 서비스 등 활동 전반에 걸쳐 고객 감동을 제공해 진정성을 이는 사람들이 선택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자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을 향해 달리다. 오센틱 럭셔리(Authentic Luxury)'라는 키 메시지를 담은 브랜드 영상을 지난 23일 공개하였다. 해당 영상은 렉서스 홈페이지 및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더 안전하고 편하다...제네시스 '2023 G90' 출시

제네시스 브랜드가 연식 변경 모델 '2023 G90' <사진>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27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2023 G90은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e-S/C) 엔진을 일반 모델에도 추가해 고객 선택권을 넓혔다. 이밖에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화하는 등 상품성을 향상했다.

제네시스는 2023 G90의 일반 모델에 기존 롱휠베이스 모델에만 탑재됐던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을 추가했다.

가솔린 3.5 터보 48V 일렉트릭 슈퍼차저 엔진은 낮은 엔진 회전(rpm) 영역대에서 모터를 통해 압축시킨 공기를 한 번 더 압축시켜 공급함으로써 3.5 터보 엔진 대비 최대 토크 시점을 앞당겨 저·중속에서의 가속 응답성을 높여준다.

제네시스는 ▲사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광각 카메라 기반 주차 및 사선 주차 포함) ▲주차 충돌방지 보조(전·측·후방)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앞좌석 프리 액세스 비드림 등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으로 구성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기본화했다.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에서 뒷좌석 도어를 자동으로 닫을 수 있게 해 '이치 클로즈' 기능의 사용성을 강화했으며, 엔진 진동을 실시간으



로 측정하고 이를 소리로 변환해 더욱 실감나는 엔진 사운드를 제공하는 ESEV(Engine Sound by Engine Vibration)를 새롭게 적용했다.

일반 모델에 신규 디자인의 21인치 휠을 선택 사양으로 추가하고, 기존 2가지로 운영했던 추천 사양 조합을 ▲파플러 컬렉션 ▲프리미엄 컬렉션 ▲프레스티지 컬렉션 등 3가지로 확대했다.

2023 G90의 판매 가격은 일반 모델 9407만원, 롱휠베이스 모델 1억6757만원이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G90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과 첨단 기술이 집약된 플래그십 모델"이라며

"전반적인 상품성 강화를 통해 플래그십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여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네시스 G90은 올해 1월 미국의 권위 있는 디자인 상인 '2022 굿디자인 어워드'(2022 Good Design Awards)에서 운송(Transportation) 디자인 부문을 수상하고, 지난해 11월 세계적인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가 발표하는 '2023년 올해의 차'(MotorTrend's 2023 Car of the Year award)에 선정되는 등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사전계약 1만대 눈앞

한국GM이 양산하는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끌면서 곧 사전계약 1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지난 22일 공식 출시와 함께 당일 오전 11시부터 사전계약을 받아 약 이틀 만인 24일 오후 계약 대수 6000대를 넘어섰다.

통상 주말에 계약 신청을 받지 않아 월요일 계약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추세가 계속될 경우 사전계약 대수는 일주일도 되지 않은 내주 초 1만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CUV 계열에서는 지난해 르노코리아자동차의

XM3 E-테크 하이브리드가 사전계약 6일 만에 4000대를 돌파한 사례가 있으나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이를 일찌감치 넘어섰다.

한국GM 내에서는 쉐보레 뉴 말리부가 영업일 기준 8일 만에 사전계약 1만대를 넘어선 기록이 있다. 그간 국내 라인업 부족 등으로 내수 부진에 시달렸던 한국GM은 한국 공장이 생산을 맡아 야심차게 내놓은 신차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이자 크게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쉐보레 대리점에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중이며, 직접 실물을 보러 방문한 소비자들도 붐비는 대리점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중고차 불만 '성능' 1위

2020~2021년 4600여건 접수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많아 성능상태기록부를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월간소비자 1·2월호에 실린 한국소비자

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는 9376건으로 그중 '성능상태 불량'이 4614건(49.2%)을 차지했다.

소비자불만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이력 미고지'가 1034건(11%), '위약금 부과 및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402건(4.3%), '계약해지·해제' 311건(3.3%), '고지 내용과 상이함' 267건(2.8%) 순이었다. /연합뉴스